

국어학에 나타나는 언어와 종교의 상관 요소

민현식(서울대 국어교육과)

1. 머리말

언어학이나 국어학과 종교학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학제간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언어학과 국어학이 종교학과 그런 학제간 연구로 가능한 일인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언어학이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고 종교학의 대상은 초월적 존재라 대상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종교 행위의 주요한 수단이 초월적 존재에 대한 언어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經典이란 점에서 언어학과 종교학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종교의 수련에서 언어 행위가 중요한 수련 수단이란 점에서 언어학과 종교학은 상당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본고는 이런 언어학과 종교학의 상관성을 국어학의 경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학의 학문적 위상과 내용을 살펴본다.

2. 학문과 종교

2.1.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의 학문 영역

국어국문학에서는 크게 국어학, 국문학을 연구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어교육학에서는 국어교육과정의 구분 전통에 따라 ‘화법(말하기, 듣기), 작문(쓰기), 독서(읽기), 문법, 문학’이라는 영역을 설정한다. 여기서 화법, 작문, 독서를 언어기능학으로 묶는다면 국어교육학은 크게 국어학, 국문학, 언어기능학이라는 3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이 중에 국어학은 언어 단위별로 음운론, 형태론(조어론+품사론), 통사론(문장론), 의미론(어휘의미론+통사의미론)로 나뉘고 그 밖에 방언학, 국어사, 국어학사라든가,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전산언어학, 통계언어학, 언어교육학 등의 응용 분야가 발달하였다. 국어교육학도 이러한 응용언어학의 전통과 관련된다.

2.2. 학문과 종교의 상관성

국어국문학 관련 영역에서 종교적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문과 종교는 어떤 관계인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대체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학문과 종교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때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개념 기준부터 정립되어야 한다.¹⁾ 대체로 종교란 초자연적 존재, 교리 체계 등을 갖춘 제도로 볼 수 있고 신관, 내세관, 사생관, 구원관, 도덕관, 자연관 등을 어떤 식으로든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종교를 거부하는 것, 가령 무신론이나 불가지론도 종교로 볼 수 있고 무신론적 유물론을 기저로 한 경제 철학인 마르크시즘도 종교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종교를 ‘마루 宗(으뜸 중), 가르칠 敎’라는 한자 뜻 그대로 제도, 비제도를 포괄하여 ‘인간 각자가 으뜸의 가르침으로 삼는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등의 용어와 상통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2) 학문 영역의 종교적 중립성, 객관성은 이상적 지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각 학문 영역에는 대소간의 종교적 요소와 종교적 지향이 불가피하다. 이는 학문 행위자인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 윤리적 존재, 가치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신론자들이 하는 학문은 유신론적 지향을 기저에 보이며 무신론자들이 하는 학문은 무신론적 지향을 기저에 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중립적 학문을 최대한 지향하지만 완전 중립성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다.

1) ‘종교’의 사전적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

종교(宗敎) ㄹ ㄱ ㄹ 宗敎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그 대상·교리·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토템·미즘·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 샤머니즘이나 다신교·불교·기독교·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3) 학문을 인문, 사회, 자연, 예술 영역으로 나눌 때 자연과학은 종교성에서 가장 멀고 중립 지향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학조차 때로는 가장 종교적 가치의 선택을 요구받는다. 가령, 오늘날 과학계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과학이 얼마나 종교적 요소를 안고 있는가를 보여 주며 생명 복제 연구의 윤리성 문제는 당사자들의 긍정적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구약 창세기의 금단의 열매인 ‘생명과’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비판을 받는다. 흔히 오늘날 대중은 자연과학 분야가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학문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 종교 제사장의 지위를 오늘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학부형들이 자녀를 과학고에 보내려고 한다든가, 과학자의 말이라면 보증수표로 믿는 경향이 있다든가, 과학만능주의에 기대려는 사회 심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학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모든 학문은 종교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4) 사회과학은 사회학, 심리학, 법학, 경제학 등의 학문이 현실 분석적이고 실용주의적이란 점에서 대체로 비종교적이지만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실용주의 노선이냐에 따라 가장 종교적 가치를 기저에 깔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시즘이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기저로 하고 각종 정치 사회 운동의 이념 배후에는 종교 이념들이 내재한 경우가 많아(가령, 해방신학 등) 사회과학이야말로 종교성의 사회적 구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사회 현상에 대해 각 종교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하고 동일 종교인이라도 대립되기조차 하는 것은 사회과학 역시 종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5) 예술 영역에서도 예술사가 대부분 종교음악사, 종교미술사를 빼놓으면 쓸 수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점에서는 종교성을 예술적으로 구현하는 분야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6) 인문학은 흔히 文, 史, 哲로 표현되는데 이 중에 철학은 신학, 종교학 등과 더불어 가장 종교 관여적이다. 사학은 역사의 객관적 기술이 본질이듯 비교적 비종교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주요 유대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문명권의 역사 전개에서 종교성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유럽 중세 역사 기술에서 기독교 교회사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예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인사들(이시영, 김규식, 이승만, 김구, 안창호, 조만식 등)의 두드러진 활동은 근현대사가 기독교 교회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문학도 문학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논란에 따라 교훈설, 쾌락설 등을 제기하는데 결국 문학의 목표를 인생의 탐구, 인간 구원의 탐구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문학은 종교성을 예술성과 결합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동서양의 위대한 고전들이 종교 문학을 배경으로 기독교문학, 불교문학, 이슬람문학 등에서처럼 종교문학의 줄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도 문학의 종교성을 보여 준다. 현대에 와서 유태주의, 심리주의, 초현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 대중문학 등이 탈종교적이라 하지만 탈종교 그 자체가 새로운 종교성의 추구란 점에서 여전히 문학의 종교성은 불변의 사실이다.

인문학 중에서 가장 크게 비종교적인 것이 언어학이다. 각 언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종교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학의 발달사에서도 종교성이 빠질 수 없다. 언어 변화를 타락으로 보던 고대 시절에 고대의 종교 경전들을 원전대로 유지 계승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오늘날도 경전 번역은 언어학사에서 중요한 기념비적 업적들로 기억된다. 언어학 자체는 중립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유대인으로 20세기 최대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반미, 반전주의자로 누구보다도 정치 참여적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학문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와 자연계에 대한 현상과 사실을 기술하고 그 가치 곧 종교성을 기저에 깔고 탐구하는 것이라 할 때 학문은 가치 지향적이고 종교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문이 종교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른 언급일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학문이 종교 지향적이라 해도 그것은 처음부터 특정 종교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종교에 흐르는 보편 종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관점으로 국어학(넓게는 언어학)에서 언어와 종교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언어학/국어학에 나타나는 종교적 요소

3. 1. 언어기원론(glottogony)의 언어 기원 문제

언어와 종교의 상관성은 언어의 기원 문제에서 나타난다. 언어는 흔히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입말과

문자언어로 이루어지는 글말로 구분한다. 이러한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연히 종교적 문제가 관여한다. 물론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기원에 대한 학문적 논쟁의 한계가 있다.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가설만 있을 뿐 사실 법칙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기원, 계통에 대해서는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문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다.²⁾ 그러나 그러한 질문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언어학개론서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정도이다.

언어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나(김방한 1994 참고) 크게는 신수설과 인간 발명설이 대립된다고 보겠다. 특히 현대 언어학서들의 상당수는 발명설을 토대로 진화론적 기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1] 인간 발명설

1) 자연 발성음 기원설(감탄사 기원설):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 표현음이 언어로 발달했을 것이라는 설로 그리스의 Epicurus 학파나 프랑스의 É. B. de Condillac이 주장하였고 루소의 언어기원설, 독일의 M. Müller는 흥흥설, 쫓쫓설 pooh-pooh theory라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가 감탄사로 소급된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2) 의성음 기원설(모방설): 여러 소리를 모방하는 과정에 언어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설로 G. W. Leibniz 라든가 루소의 자연의 울음소리설, 필러의 멍멍설 bow-bow theory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성어는 언어의 일부일 뿐이다.

3) 원시적 노래 기원설: 언어가 원시인의 노래에서 나왔다는 설로 O. Jespersen이 주장하였으며 ‘아아설’ sing-song theory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노래와 언어가 소통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끄끙설: 바벨탑 쌓기처럼 어려운 일일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여 끄끙거리는 과정에서 언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설로 소련의 실어증 학자 A. R. Luria의 설이다.

5) 몸짓 기원설: 몸짓 언어가 음성언어로 발달하였다는 설로 W. Wundt가 주장하였다. 그러나 몸짓에서 음성언어로 발달하였다는 것은 비약적이라 증명하기 어렵다.

6) 접촉설: 심리학의 발달로 능동적, 감정적, 지적, 접촉 행동이 언어 발달로 이어졌다는 설로 심리학자 G. Révész의 가설이다.

7) 멍멍설: 종을 치면 ‘땡’하고 손뼉을 치면 ‘ 짹’하듯 사물에서 나는 소리를 지각하는 대로 표현하려는 데서 발생하였다는 설로 Aristotles의 멍멍설이 이에 해당한다. 달리 ‘땡땡설’ding-dong theory라고 한다. 창세기에는 이와 달리 아담이 사물에 멍멍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8) 진화설: 진화론, 고고인류학의 영향으로 Philip Lieberman 같은 학자는 기어다니던 인간이 걸어 다니는 자세로 바뀌면서 머리와 고개 위치의 적응 과정을 통해 두뇌 진화와 함께 언어 발성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김진우(1985: 제3장)에서는 이런 견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상의 언어 기원설은 신뢰할 근거들이 불충분하며 진화설을 과학적, 고고인류학적 가설위에 제시하고 있는 정도인데 진화론적 언어 기원설이 입증되지 않은 것임은 진화론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일방적 진술이 위험하거나 적어도 균형적 사고를 위해서는 신수설의 관점에서 진화론적 언어관 이외에 창조론적 언어관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언어 기원은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神授說: 신화라든가 종교 경전들에서 초월적 신에 의한 인간 언어나 문자 제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신화들에서 언어 문제를 다룬 신화란 찾아보기 어렵다. 겨우 中國의 경우 한자의 기원론을 다룰 때에 여러 문헌들에서 伏羲氏 때에 八卦와 書契가 만들어져 文籍이 생겨난 것처럼 말하고 있거나, 倉頡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설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 한자기원설들도 온전히 신뢰하기란 어렵다. 이런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히 언어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 성경은 신에 의한 창조인 신수설도 보여 주지만 아담에 의한 멍멍 행위도 보여 주어 인간 발명설도 지지하는 이원적

2) 프랑스의 파리 언어학회가 1886년에 이미 ‘언어의 기원에 관한 논문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김진우 1985: 43).

기술을 보여 준다.

(1) 창조의 7일

- 1일: 빛을 창조. => 최초의 명령문: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 2일: 궁창(穹蒼, 하늘, expanse, firmament)
- 3일: 땅, 바다, 식물
- 4일: 해, 달
- 5일: 조류, 어류
- 6일: 육지생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다.
- 7일: 안식

(2) 창세기 1장과 창조론: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창조하시고)...

-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 언어와 命名 행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9, 20절

-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4) 인류의 분화: 창세기 10장(노아 홍수 이후)

-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32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5) 창세기 11장(바벨탑 사건)

-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

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주지하다시피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 언어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역사적 증언이다. 따라서 언어학개론서의 첫 장은 당연히 바벨탑 사건의 언어사적, 신학적 의미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약 시대에 성령 강림 이후 사도행전에서 언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므로 성경과 언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언어학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는 언어학과 언어교육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1) 단일 언어 시대에 왜 인류는 반역하였는가?

(2) 바벨탑 사건의 결과와 외국어 학습의 숙명적 관계는 무엇인가?

(3) 언어가 달라졌지만 인류는 하나 될 수 없는가? 언제 인류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외국어 학습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의 1/3이 외국어 학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갈등이 벌어짐을 생각할 때 노동의 원죄 못지않은 원죄가 언어 소통의 고통이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강림과 그 방언의 세례를 통해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바벨탑 사건의 징계를 성령강림절 사건으로 봉합하셨다.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예수그리스도로 보여 주었다.

3.2. 언어계통론(genealogy)과 종교 분포

언어학에서는 언어 계통을 다루는데 계통을 다루다 보면 언어의 분포에 대해 논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에 8-10대 어족, 3000-6000여 언어, 400여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어족과 언어는 특정 종교와 연계되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유럽어족의 유럽어권에 기독교, 천주교가 발달하였고, 히브리어에 유대교, 아랍어에 이슬람교, 힌두어에 힌두교, 동아시아 어족에 유교, 불교 등이 발달하였다. 대다수 종교는 동양어권에서 기원하는 것도 흥미롭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노아에 대한 예언은 의미심장하다.

(창세기 9장 18-29)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1)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둘째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살았고

29 그의 나이가 구백오십 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는 야벳(백인종 유럽권)은 물질문명으로 창대하지만 셈(황인종 동양어권)의 장막(정신문명)에서 위로를 얻으며, 함(흑인종 아프리카어권)의 후손들은 고난을 겪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상 오늘날 종교는 셈 문화권에서 발명되었음을 생각할 때 참고할 구절이다.

다양한 언어 양상과 관련하여서는 각 언어권별로 종교 경전들의 명칭과 언어, 경전 번역의 역사를 조사할 수 있다. 한 예로 성경의 경우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2,35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는데 지역별 번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별	단편	신약	성경	합계
아프리카	219	293	153	665
아시아	224	232	129	585
대양주/태평양	160	217	37	414
유럽	113	35	61	209
북미	40	28	7	75
중남미	115	263	26	404
기타	2	0	1	3
합계	873	1,068	414	2,355

이들 성경과 각 언어권별 번역의 역사는 오늘날 언어학에서 번역학의 기초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³⁾

국어에서도 고려 시대 불경 자료에 전하는 구결법은 고려 시대 국어를 재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고, 훈민정음 창제 후 세조 때에 刊經都監에서 불경 언해 사업을 한 것과 校正廳에서 유교의 경전을 언해한 것, 개화기 및 현대의 성경 번역은 언해의 전통이 국어사 및 번역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함을 보여 준다.

3.3. 言語 神聖觀(言靈 思想)

모든 종교는 언어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 종교가 언어를 다루는 측면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경전어의 신성성: 종교의 경전은 매우 신성하므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 성경무오설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2) 경전어의 능력성: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말은 신비한 능력 즉 언령이 있어 경전 구절(성구), 기도문, 주문 등에는 종교적 힘, 주술력, 치료력이 있다고 믿는다.
- (3) 경전어의 금기성: 경전들마다 일상 언어생활을 신중히 할 것을 교훈한다. 대개의 경전에서 금기어라든가(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 등),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든가(마태 5: 22) 언어생활의 금계가 있다.
- (4) 경전어의 윤리성: 축복의 언어, 긍정적 언어생활을 강조하기도 한다. 성경의 경우 축복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통해 적극적 언어생활을 가르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식의 적극적 사고방식의 언어를 권면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태 11: 2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장)

언어생활의 윤리성, 수행성을 강조하고 신중한 언어생활을 요구하는 점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언어 윤리와 종교 윤리의 상당 부분은 상호 연관되어 기독교 윤리, 불교 윤리, 유교 윤리 등에서도 언어 문제를 다루게 된다.

종교에는 원래 절대적 존재가 있고 이 존재와 통하려면 일정한 주문, 기도문, 경전의 말씀이 있어 그

3) 성경 번역의 역사는 민영진(1984), 나채운(1990) 참고.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에도 성경번역사가 교육용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경전어에는 신비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신비함을 달리 말하면 언어에 신령한 영혼이 있다고 보아 言靈이라고 할 수 있고 언어신성관의 태도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고대 가요에는 그런 신비함이 녹아 있으니 熊女가 桓雄에게 ‘願化爲人...呪願有孕’을 빌어 성취한 것도 그런 言語呪術의 예이다. 대체로 고대에는 무교적 언어신성관과 불교적 언어신성관이 나타난다(김민수 1979).

① 巫敎의 신성관: 단군신화, 수로부인의 海歌詞, 질병 척사에 쓰인 處容歌, 月明師의 兜率歌, 融天師의 彗星歌, 信忠의 掛冠, 英才 遇賊 등을 들 수 있다.

② 佛敎의 신성관: 황룡사 구층탑, 金現感虎, 密本催邪, 郁面婢念佛西昇 등에 있다.

3.4. 언어학사와 종교

(1) 전통 언어관과 종교

언어학은 전통언어학(고대-19세기), 구조언어학(20세기 전기), 생성언어학(20세기 후기)의 세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 언어학은 일정한 언어관을 보여 준다. 전통언어관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전통언어학의 언어관으로 언어를 인격 수양의 도구로 보는 倫理的 言語觀과 언어의 변화를 타락으로 보아 원형을 유지 보존하려는 保存的 言語觀을 함께 아우르는 말이다. 전통언어학은 종교와 매우 밀접하여 종교의 경전들을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주석학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변화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경전의 원전을 발음과 표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후대 사람에게는 고전어를 읽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식어에 고전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불교에 전해 오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주문이라든가, 천주교에 전해 내려오는 라틴어 기도주문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런 예들이다. 이러한 종교 경전들의 보존 노력이 자연히 언어 연구에도 영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인도의 경우 고대 힌두교 경전인 베다(Veda)의 분석을 위해 B.C. 4세기경 Panini의 ‘범어문전(梵語文典)’(전 8권)이 梵語의 곡용, 활용 등의 규칙을 정밀하게 보여 준다. 이 파니니의 문법을 인도의 영국인 변호사인 W. Jones 경(1746-1797)이 보고 인도 유럽어족 가설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게 됨으로써 인도의 고대 종교 경전 문법이 서양의 역사비교언어학 및 근대언어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의 고대 문법 연구의 전통은 불경 연구에도 이어졌다. 중국도 일찍이 한나라 이래 음운학, 문자학의 발달과 함께 경서에 대한 주석 문법인 훈고학이 실용적으로 발달해 왔다.

고대언어학 이래 중세언어학을 거쳐 19세기까지의 근대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전통언어학에서는 언어변화를 타락으로 보고 최초 원형의 보존을 추구하다 보니 종교에서의 경전 연구는 언어 보존적 차원의 연구로 흐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법 현상을 탐구하게 되었다. 성경의 필사본 연구뿐만 아니라 성경의 正經, 僞經 논쟁도 이와 관계된다고 하겠다. 중세의 라틴문법은 중세 신학의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졌고 근대 규범문법으로 이어진다. 근대에는 르네상스이후 라틴어 중심의 중세 체제가 붕괴되어 가면서 영어, 독어, 불어 등의 평민어를 기반으로 한 자국어에 대한 자각이 성경번역으로 나타났으나 언어의 변천을 타락으로 보고 타락한 언어를 표준라틴문법의 틀에 맞추려는 문법관이 지배적이었다. 대체로 고대, 중세, 근대의 문법은 문법을 바르게 쓰고 말하는 기술(art of writing and speaking correctly)로 인식하고 언어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 변화를 타락으로 보고 문법의 임무는 언어의 타락을 막고 원칙을 규칙화, 규범화하여 고수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2) 현대 언어관과 종교

현대의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에서도 종교철학적 배경이 관여한다. 이들 언어학의 언어관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언어를 구조로 보거나 생성 능력으로 보는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즉 Saussure에서 시작된 유럽 구조주의는 미국에서도 Sapir, Bloomfield로 이어지며 꽃 피우는데 그 바탕은 경험주의 철학의 전통을 이으며 실제 언어의 자료 분석을 통해 언어의 구조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해 존 로크의 귀납법과 경험주의 철학을 토대로 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후천적 언어 습득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촘스키가 선도한 20세기 후반의 생성언어학에서는 神 관념의 선천적 본유, 先在를 믿는 데카르트 本有說(生得說, innate theory)과 연역법 및 합리주의 철학의 전통을 이어 인간의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선천적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본유한다

고 보았으며 이 선천적 언어 능력이 유한한 규칙으로 무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들 두 사조의 대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조주의 언어학]	[변형생성언어학]
언어습득론	후천적 경험 중시	선천적, 생득적 능력 중시
배경 철학	로크의 경험주의 행동주의 자극-반응 이론 소쉬르의 구조주의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관련 분야	인류언어학, 사회언어학	언어유형론
언어철학	언어의 개별성 탐구 각 민족어의 개별 특성 탐구 언어 상대성 원리	언어의 보편성 탐구 보편가설을 민족어에 적용 언어 절대성, 보편주의
주요 관심 분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연구 방법	귀납법 현장 언어 채록 조사 중시	연역법(가설의 계속된 수정)
주요 학자	Saussure, Bloomfield 등	Chomsky 등

사물을 통한 경험적 자료로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는 귀납법이나, 신의 존재 여부를 전제하고 나서 사물 현상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통해 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려 한 연역법이나 언어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언어학사는 곧 철학사나 종교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4. 고대국어와 종교적 요소

4.1. 단군 신화와 고대 종교

다음과 같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도 언어와 종교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立都阿斯達(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 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三國遺事>

‘壇(檀)君, 王儉, 桓雄, 桓因, 阿斯達’ 같은 인명, 지명 표기는 고대국어의 관심 사항인데 단어 해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단군은 알타이어족에서 무당을 뜻하는 ‘단골’과 통한다고 하고, ‘왕검’의 ‘-검’이나 ‘임금’의 ‘-금’은 곰 토템의 ‘곰’과 관련되고, ‘환-’은 ‘한’(大)과 관련되며, ‘아사’는 ‘앗-’(아재, 아저씨, 아줌마, 아스, 아촌설)과 관련하여 ‘小’나 일본어 ‘朝’(あさ)와 관련하여 ‘朝鮮’과 연계 짓기도 한다. 종교적으로도 삼국유사의 단군 기록에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ㄱ) 환인-환웅: 우리 민족은 天孫 민족으로 天孫 신앙을 가지고 있다.

ㄴ) 壇君 => 檀君: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檀으로 바뀜. 따라서 원래의 ‘壇君’은 제단의 임금으로 제정 일치 시대의 제사장을 뜻한다.

ㄷ) 神檀樹, 神市의 예는 종교 공동체의 이주와 형성을 보여 준다.

(2) 왕 및 제사장과 제정일치

고대국어 자료에는 임금 호칭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가 전해진다.

ㄱ. 次次雄 或云 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삼국사기 권1) …………… 次次雄 = 巫 = 尊長者

ㄴ. 金大問則云 尼師今 方言也 謂齒理(삼국사기 권1) … 尼師: 닛-(니셔, 니스니) 今: (王)儉

왕을 가리키는 ‘次次雄, 慈充’은 ‘스승’의 고어로 보이는데 15세기 한글 자료에 ‘스승’을 ‘무당, 승려(화상)’로 보여 주고 있어 제정일치 사회에서 왕과 제사장, 스승, 존귀자가 동격에 놓이는 존재였음을 보여 준다. 혹자는 ‘중’을 ‘慈充’과 관련짓기도 한다. 현대의 평안, 함경 방언에서 ‘스승’은 무당을 뜻함도 참고 된다.

ㄱ. 넷 님그미 스승 스로물 삼가시고(前聖愼焚巫, 두시언해 초간 10: 25)

ㄴ. 和尚은 스승을 니르니라(석보상절 6: 10)

이러한 제정일치 종교문화의 어휘와 관련하여 우리 전통 종교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흔히 한국 전통 종교를 무속 신앙이니 샤머니즘이니 하는 말을 하는데 옛날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에서 성행했던 무속 종교인 샤머니즘을 한국 종교라고 하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무속 종교가 한국 종교라고 하는 주장은 한국인에게 철학과 사상이 없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종교에는 경전이 있고 사생관, 내세관, 구원관이 있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의 무속 신앙은 가장 저급한 기복신앙일 뿐 종교 차원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경전도 없고 무당의 사설만 있을 뿐이며 내세관도 구원관도 없기 때문에 무속 샤머니즘은 종교가 아니다. 오로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뒷사람이 그 귀신을 위로하고 내쫓기 위해 굿만 반복할 뿐이다.

특히 무속 신앙은 자기 집 울타리를 못 넘어 자기와 가족만의 복을 비는 이기주의적 기복 행위일 뿐이다. 기독교의 이웃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민족 종교인 양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삶을 살려면 개인 기복주의의 무당 샤머니즘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

샤머니즘을 종교로 볼 수 없는 것은 무당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속에서는 역사의식도 철학도 찾을 수 없고 내일에 대해 흑세무민할 뿐이다.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없고, 미래관이 없는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다. 샤머니즘 문화에서는 자기와 가족만 생각하므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할 수 없다. 기독교권인 서구에서 기부 문화가 활발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데 반해 우리는 기부문화가 희박하고 공동체 의식 대신 사회주의 의식이 극성을 부리고 급기야 북한 공산 체제가 형성된 것도 그러한 개인구복적 샤머니즘에 갇힌 민족의식의 부정적 산물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신앙의 역사를 발견하는 일이다. 원래 구약 시대 믿음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와서 구약적 제천 의식의 신앙을 유지하다가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신흥 종교들에 밀려나 근대에 이른 것으로 볼 때, 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잠재된 구약적 신앙의 뿌리가 부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창조 사학’의 탐구는 소위 정통 역사학자들의 탐구 못지않은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⁴⁾

(3) 불교계 어휘 문화

우리나라는 불교문화가 삼국 시대의 불교 전래 이래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불교 어휘가 많이 남아 있다.⁵⁾ 이들도 국어 어휘부에서 종교어의 일상어화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장로, 성령, 영생’과 같은 단어가 원래 불교어이었는데 기독교에서 통용하게 된 사실이다.

4) 김성일의 창조사학은 한민족의 뿌리를 구약적 유일신 신앙이 원류라 보고 후대에 유, 불, 도교 신앙들이 들어와 원류를 밀어내었으나 개화기의 개신교 전래로 그 원류가 부활한 것으로 본다. 국민일보 연재 ‘창조사학 특강’(2001. 01. 18 - 2. 3) 참고.

5) 이에 대해서는 채완(1996)의 논문에서 밝혀놓은 것이 있다.

(ㄱ) 音譯語: 불타, 탑, 보살, 화상, 염라(염마)대왕, 미륵, 사리. 건달(과), 阿闍利, 阿修羅場, 恒河沙, 劫, 刹那

(ㄴ) 意譯語: 결과, 마귀, 방편, 번뇌, 세계, 원만, 인과, 인연, 자비, 장엄, 지옥, 화두, 의심, 무명, 참선, 잡념, 신통, 해탈, 세간, 삼매, 점심, 무심, 上土, 中土, 下土, 長老, 聖靈, 永生, 理事, 知識, 出世, 결식, 대중, 동냥, 바라지, 사자후, 아비규환, 이심전심, 장광설, 행각, 현관, 가책, 業, 산화, 야단법석, 이판사판. 不可思議, ..

(ㄷ) 混譯語: 단말마(한자 ‘단’ + 음역어 ‘말마’)

다음 사례에서는 의미가 변한 양상을 볼 수 있다(채 완 1996).

奇特: 매우 드물고 특이한 일로 부처가 세상에 온 일. 부처가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面目: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은 심성.

主人公: 외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망상과 번뇌의 바람에도 동요되지 않는 진실한 자아.

出世: 부처가 중생의 세계에 출현하여 교화하는 것.

玄關: 깊고 오묘한 이치에 통하는 관문.

(4) 차자법의 발달

한글 이전의 문자 시대는 한자의 음훈을 이용한 借字法 시대인데 이러한 차자법의 발명은 佛經의 전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박병채 1973). 즉 불경이 고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音譯하거나 意譯하는 방안들이 고안되었고 이 음역과 의역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전해져 한국식 차자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金石文이나 文書 등의 散文 표기에 쓰인 吏讀, 詩歌 표현에 쓰인 鄉札, 유교나 불교 經書의 끊어 읽기 讀法으로 발달한 口訣이 발달하였다. 이들은 한자의 음훈을 이용한 것으로 원리는 같으나 용도상의 구별을 보인다. 그런데 흔히 이두를 창제한 것으로 알려진 薛聰은 불교의 고승 元曉의 아들인데 다음 기록이 증언하듯 고려 시대 유학자들이 추앙하던 인물이며 경서에 통달하고 구결 독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본다.

薛聰, 字聰智...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三國史記 권 46, 列傳 6: 우리말로 九經을 해독하여 후생을 훈도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으뜸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대가 밑에서 유교의 대가가 나온 것을 통해 당시의 종교가 편협하지 않고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 불교의 공존공생은 고려 시대에도 이어진다. 崔行歸라는 한림학사는 均如大師의 ‘普賢十願歌’가 불교의 진리를 보여 주는데 이를 향찰로 적어서는 중국인이 못 알아보니 漢譯詩로 알려야겠다고 하여 한역시를 남기고 있다.

均如傳 제8: 而所恨者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鄉謠...(중략)...右歌詩成 彼人爭寫一本 乃傳於西國...

이것도 유학자가 불교시를 번역하는 융통성을 보여 주어 우리나라가 종교심이 강한 만큼 종교 전쟁을 거치지 않고 화합하여 온 전통의 일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러한 유, 불교 공존공생의 전통은 抑佛崇儒의 조선 시대에서도 세종의 불교 심취로 공존하였고 현대에 와서도 1919년의 3·1운동에서 33인이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를 대표하여 화합 공존을 보여 준다. 한국인이 당파성과 종교성이 강한 것을 볼 때 종교 분쟁이 없는 것이 신기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이런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 경서 독법의 발달

유교 및 불교 경서들이 들어오면서 한문을 토를 달아 읽는 구결법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구결법을 설충이 집대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구결법 원리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고려 시대 불경을 거쳐 조선 시대 유교 경전의 구결법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개화기까지도 구결문이 황성신문이나 잡지들에서 쓰여 국어의 차자법 발달에 경서 구결법이 기여한 바 크다.

① 13세기 말엽 이전 자료인 ‘구역인왕경’의 구결문

- ㄱ. 信行^乙 具足^{ソコカ} 復^ソ 有^{セナカ} 五道^セ 一切衆生^リ 復^ソ 有^{セナカ} 他方^セ 不^ス 矢^{リヒセ} 可^{セソ} 量^ノ 衆^ヲ (舊仁 二 1-2)
- ㄴ. 信行^乙 具足^{ソコカ} 復^ソ 五道^セ 一切衆生^リ 有^{セナカ} 復^ソ 他方^セ 量^ノ 可^{セソ} 不^ス 衆^ヲ 有^{セナカ}
- ㄷ. 信行을 具足히시며 또한 五道入 一切衆生이 잇거며 또한 他方入 量함 짓흔 안디이닛 衆 잇거며
- ㄹ. 信行을 具足하시며 또한 五道の 一切衆生이 있으시며 또한 他方の 해야림이 可能하지 않은 무리가 있으시며

② (원 문)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

(구결문) 子曰,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언해문) 子ㅣ 돌아사디 學하고 時로 習하면 또한 짓브리 아니하랴(논어언해 1:1)

③ 聖上御極히신 十八年辛巳春에 余가 東으로 日本에 遊하야 其 人民의 勤勵흔 習俗과 事物의 繁殖흔 景像을 見함의 竊料히든배 아니러니 及其國中의 多聞博學의 士를 從하야 論議唱酬하느 際에……(서유견문 序)

④ ㄱ. 凡我留學生之在於東京者ㅣ千則多하고 五百則少하니 要之可爲六七百人이라 卽六七百人이 自爲一家族社會하니 以一家族社會로 不有親睦團結之力이면 其不辱留學生之名義乎아…(大韓 留學生 學報 창간호, 1907. 3. 3.)

ㄴ. 昔我東方에檀君이初降하미人文이未創하야其傳來하느文獻이足히徵호비無하더니箕子씩서八條를設하샤人民을教育하시니可히我東의初出頭하第一聖人이라謂호지라 …(황성신문1호, 사설)

5. 중세국어와 종교적 요소

(1) 성리학과 훈민정음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영민한 세종의 지혜의 산물이지만 그 바탕에는 성리학의 영향이 있었다. 성리학은 송나라의 주자가 음양오행설에 따라 공맹의 철학을 우주철학으로 발전시킨 송대의 유학이다. 성리학의 경전인 ‘性理大典(1415)’은 만물의 현상을 음양오행설로 설명하는데 聲音에 대해서도 중국 聲韻學의 전통을 계승하여 음양오행설로 분석하였다. 牙, 舌, 脣, 齒, 喉의 五音과 全清, 次清, 全濁, 不清不濁의 분류는 이미 중국 聲韻學에서 확립된 용어이었다. 이 성운학을 국어에 적용하여 문자 체계를 발명한 것이 훈민정음이라 성리학은 훈민정음 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종은 ‘性理大典’을 수용하여 신하들과 聲韻을 탐구하고 1443년 12월의 훈민정음 창제에 이르는데 해례본을 보면 상당수 구절이 성리대전에서 인용한 것이다.⁶⁾ 특히 이를 도운 정인지(鄭麟趾)·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의 집현전 소장학자들도 성리학자로 성음에 관한 연구를 하여 한글 창제에 기여한다. 한편 한글을 이용하여 한자음 개혁을 하려던 세종의 정책에 반대한 최만리도 당대의 원로 유학자이다.

① 鄭麟趾(1396-1478): 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국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문한(文翰)을 관장하고 역사·천문·역법·아악을 정리하였고, 한글 창제에도 참여하여 해례본을 편찬한다.

② 崔萬理(?~1445): ‘韻會’의 번역으로 한자음을 개혁하려 하자 원로로서 좌시할 수 없다고 보아 1444년 2월 辛碩祖·金汶·鄭昌孫 등 중진학자들과 함께 한글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세종의 노여움을 사 친국을 당한 후 다음날 석방되었으나 사직하고 낙향했다.

(2) 불교와 훈민정음: 刊經都監의 불경 언해본 간행

세종은 말년인 1446년에는 소헌왕후 沈氏가 소천하자 불교에 심취한다. 그리하여 훈민정음과 직후에 나온 불교 문헌들의 배경에는 불교 포교적 동기가 담겨 있다.

6) ‘성리대전’을 인용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 인용의 양상은 이성구(1985) 참고. 훈민정음 전반에 대해서는 강신항(2003) 참고.

① ㄱ. 훈민정음 御製 序文: 國之語音...便於日用耳 => 54자

나랏말싸미... 便安의호고저 훈 쓰르미니라 => 108자

ㄴ. 월인석보 1권: 108장

ㄷ. 여러 차례의 祈雨祭 행사: 108명의 승려

② 불교 문헌 발행: 세종대의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조대의 간경도감 설치와 불경 언해류 발간(동국정운식 표기법에 따랐으나 비현실음이라 대중 수용에는 실패)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불경들의 언해를 진행함은 불교 포교에 한글이 이용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간경도감의 언해본 불경들은 우리 언어문화사에서 번역사를 장식하는 훌륭한 금자탑이라 하겠다.

(3) 校正廳의 설치와 유교 경전의 언해 간행

선조 때에 교정청(1585)을 설치하여 유교의 경서 언해를 단행한다. 간경도감의 불경 언해 사업보다는 늦었지만 이는 한문을 아는 사대부층들이 유교 경전들을 번역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경서언해는 ‘논어언해’, ‘대학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 ‘시경언해’, ‘서경언해’, ‘주역언해’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교 경전에 대한 번역 사업은 이미 세종대에 추진하였으나 미미하였고 성종대 이후 진출한 사림파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면서, 성리학의 이념을 사회에 고루 전파하고자 ‘小學’을 번역한 ‘번역소학’(1518)을 내고 다시 ‘소학언해’(1586)을 내는 등 유교 경전의 전파에 힘을 쏟게 된다.

6. 근대국어와 종교적 요소

(1) 실학 시대와 국어 연구

조선 전기의 성리학이 임란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영에 실패한 후 성리학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陽明學이 소개된다. 또한 성운 연구는 신경준, 유 회 등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해지는데 유학자들이 한자음 연구를 하면서 발음 표기 수단으로 한글을 이용하는 논의를 하게 되고 한글의 기원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실학자들은 성운학뿐만 아니라 어휘 연구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수광, 이 익 등을 거쳐 정약용에 의해 집대성된 실학사상은 종교 영역은 아니지만 조선 전기의 성리학이 실패한 데 대한 반성으로 자주적으로 창출한 사상이란 점에서 종교 가치를 가진다. 이 실학 시대에 국어 연구가 활발하여 여러 어휘집 발간, 사전 유해류 발간 등으로 나타나 서양 근대 계몽주의의 백과전서학과와 비견할 수준의 언어 연구를 보인다.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천주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배지 생활을 하면서도 국어 관련 자료를 저술하였다.

① 李晔光(1563-1628): 중국을 다녀오면서 ‘天主實義’를 가져들어와 천주교와 서양문물을 소개하였고 ‘芝峰類說’(1614)에서는 한글의 梵字 起源說을 제기하였다.

② 李 灝(1682-1763): 이황(李滉)의 성리학적 입장과 유형원(柳馨遠)의 실학정신을 계승한 그의 사상은 정약용에게 집대성되어 實學으로 발전했다. ‘星湖僊說’에서 한글의 몽고자 기원설을 제시하였다.

③ 申景濬(1712~1781):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의 10대손이며 대표작인 ‘訓民正音韻解’(1750)은 성리학의 성운학 이론에 영향을 받은 책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깊이 문자론을 전개한 저술이며 한글의 象形說을 제시하였다.

④ 李德懋(1741-1793): ‘靑莊館全書’에서 한글이 古篆 漢字에서 유래한다는 古篆 기원설을 제시하였다. 가령 ㄹ은 己, ㅁ은 圃, ㅂ은 口 자에서 유래한다는 식이다.

⑤ 柳 僖(1773-1837): 평생 재야 문인으로 저술에만 몰두하여 ‘文通’ 100권을 저술하였는데 권19에 나오는 ‘諺文志’에 한글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된소리의 각자병서 표기를 주장하고 한글의 몽고자 기원설을 따랐다. 또한 어휘집인 ‘物名類攷’도 남겼다.

⑥ 丁若鏞(1762~1836): 그는 ‘雅言覺非’(1819)를 지었는데 이 책은 당시 국민들이 쓰는 어휘 중에 오용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총 199항 450여개 단어를 수목명(樹木名)·약성명(藥性名)·식물명(食物名)·의관명(衣冠名)·악기명(樂器名)·건축물명(建築物名)·어류명(魚類名)·지리명(地理名)·곡물명(穀物名) 등으로 분류하고, 동음어·동의어·방언, 어원학적으로 잘못 쓰는 것, 음을 잘못 쓰는 것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⑦ 丁若銓(1758~1816): 약용(若鏞)의 중형(仲兄)으로 이벽(李檉)과 매형인 이승훈(李承薰) 등과 교류하

여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접하고, 가톨릭에 입교, 벼슬을 버리고 전교에 힘썼다.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黑山島에 유배되어 지내면서 최초의 어류 보고서인 ‘자산어보(茲山魚譜: 현산어보)’를 지었다.

(2) 천주교⁷⁾ 전래와 언해 자료

이승훈이 세례 받아 돌아온 후 천주교가 전파되면서 성경 번역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천주교 성경은 완역본이 아니라 성경 복음서를 발췌역한 것으로 ‘성경직히’(1892-1897) 또는 ‘성경직히광익’이 한글체로 나타난다. ‘성경직히’나 ‘성경직히광익’은 한문본 ‘聖經直解’(1636.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Emmanuel Diaz가 펴냄)와 ‘聖經廣益’(1740. 프랑스 신부인 예수회 선교사 F. M. de Mailla 펴냄)을 역관 출신으로 나중에 순교한 崔昌顯(1754-1801)이 1790-1800년 사이에 통합 발췌역하여 1세기 동안 통용된 것이다. 여러 필사본이 전하는데 이 필사본 중에 하나를 다시 보완해서 1892-1897년 사이에 활판본(9책)으로 낸 것이 ‘성경직히’이다. 활판본 ‘성경직히’가 나오기까지는 모든 필사본이 ‘성경직히광익’으로도 불렸다.⁸⁾ 특이한 점은 ‘성경직히’가 된소리 표기에서 당시 다른 문헌들이 ㅅ계 합용병서(ㅅ, ㅆ, ㅈ...)를 쓰던 것과 달리 ㅅ, ㅆ, ㅈ 등의 각자병서를 가장 일찍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정길남 1986).

(3) 개화기 국어와 기독교

최현배(1962)는 근대말에 전래된 기독교의 공헌을 다음과 같이 8가지 영역으로 정리한 바 있다.

1. 성경을 한글로 뒤치기 2. 찬송가 뒤치기 3. 기독교 문학의 뒤치기
4. 신문 내기 5. 잡지 내기 6. 배달말의 연구(말본과 사전)
7. 한글의 연구(Romanization) 8. 천주교 관계 서적들

또한 한글이 기독교에 준 공덕과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을 구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 한글이 기독교에 준 공덕

①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 덕분에 기독교 전파가 쉬웠다. 무식층이 기독교 믿어 유식층이 되었다: 외술의 이런 언급은 기독교 부흥의 한 요인으로 한글의 편리성을 지적한 것인데 15세기 한글 창제 후 대표적 문서 사업으로 간경도감에서 불교 문헌이 나왔으나 포교용으로는 실패한 것과 대조가 된다. 비현실적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와 국한혼용체가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배달겨레에게는 하느님 경배 사상이 있어 왔는데 기독교가 신을 ‘하느님’이라 표현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았으며 기독교가 전통신앙과 합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일신이란 뜻으로 신을 ‘하나님’으로 칭한다는 것은 언어 논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부당하다. 이에 따라 외술은 ‘하나님’이 수사에 ‘-님’이 붙어 국어 문법 구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하느님’으로 쓸 것을 주장한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등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므로 ‘하늘 아버지’라는 뜻의 ‘하느님’이 문제없다고 한다.⁹⁾

2.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

①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하였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쳐 신지식을 접하게 되니 ‘어리석은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세종의 뜻이 성공한 사례이다.

② 목사의 언행에 따라 교인이 달라지고 산간마을에서도 지역의 계몽자, 지도자가 되어 갔다.

③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렀다. 일제말 억압 속에서도 교회는 설교

7) 성경 번역사는 민영진(1996: 175-196)

8) ‘성경직히’의 연구는 서정수(1985), 손세모돌(1985, 1991), 김충효(1987), 조화선(1985)이 참고된다.

9) 초기 성경에서도 번역어에 차이가 보인다.

예슈성교누가복음전서(1882): 하느님

예슈성교성서 요한니 복음(1883): 하나님

예슈성교전서(1887): 하나님, 주

백낙준(1973)도 ‘한국개신교사’에서 밝힌 바 있듯이 초기에는 ‘천주, 상제’로 일컬어지던 여호와를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변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유일신의 의미로 의미 부여하게 되었다.

와 찬송가 예배로 한글과 국어를 유지하여 지켰다.

④ 한글의 과학스러운 가치를 인정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고 그 영향으로 기독교 기관에서 국어학자들(주시경, 최현배, 이운재, 정태진, 정인승, 장지영, 김윤경 등)이 대거 배출되었다.

⑤ 배달의 말글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였다. 선교사들의 한국 관련 연구들이 세계로 한국과 한글을 알렸다.

⑥ ‘한글만 쓰기’(한글 전용)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성경 배포 사업은 한글 전용에 기여하였다: 개화기 전도자들인 ‘勸書, 賣書人’은 한글 성경과 전도문서의 전파자로 한글 전파자였다. 安昌浩도 매서인이었던 새문안교회 첫 장로 송순명이 새문안교회의 고아원인 永信學堂(일명 구세학당)으로 인도하여 믿게 되었다. 당시 영신학당에서는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시오.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 할 수 있소’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상의 언급 외에도 기독교는 혼돈의 조선 사회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계몽하고 교육 의료 구제 사업으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으로 이승만, 조만식, 이상재, 안창호, 김 구, 김규식, 이시영 등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이제 기독교 전래에 관련하여 성경 번역과 선교사의 국문법 연구의 측면을 따로 살펴보도록 한다.¹⁰⁾

(4) 성경 번역과 국어 문체 발달

성경 번역은 한글 이해를 통해 언문불일치의 한문 중심 생활을 국한혼용체나 한글전용체의 언문일치체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김병철(1975)은 특히 번역사의 관점에서 성경 번역이 문체 발달에 끼친 의의를 지적하고 있다.

첫 한글체 성경은 만주에 와 있던 영국 선교사인 로스(J. Ross) 및 그의 동료이자 매제인 매킨타이어(J. MacIntyre)와 한국인 조력자 李應贊, 白鴻俊, 徐相崙 등이 국내 최초로 번역한 ‘예수성교전서’(속칭 로스본, 1887)이다. 로스본은 원래 쪽복음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니 ‘누가복음’(1882)이 첫 번역서이며 그후 계속 이들이 ‘요한니복음’(1882), ‘데자헝적’(1883), ‘말코복음’(1883), ‘마태복음’(1883)… 등 9종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1887년에 이들을 합해 신약성경을 완역한 ‘예수성교전서’가 나온 것인데 이를 모두 로스본이라 한다. 로스역본은 로스를 도운 이응찬, 서상륜 등이 평안도 출신 청년들이기 때문에 평안 방언이 많이 반영되어 오늘날 평안 방언 연구에 귀한 기여를 한다.

ㄱ. 데자를 위거 비에 올라 먼저 더컨 두던에 건너가라 호고(마태14:22)

ㄴ-1. 이제 독구를 남우 뿌리에 두워사니(마태3:10) - 독구: 도끼

-2. 하늘에 잇는 아밤을 영화케 호라(마태5:16) - 아밤: 아버지

ㄷ. 아달을 나으메 밋쳐 일흠을 칭호여 예수라 호다라(마태1:22)

ㄱ처럼 ‘ㄷ’음의 유지로 구개음화를 거부한 예들, ㄴ처럼 평안 방언의 예들, ㄷ처럼 회상법 ‘-더-’ 대신 ‘-다-’의 사용 등에서 토박이가 아니면 구사하지 못할 표현이 많아 로스본이 선교사 번역이라기보다 조선 청년들이 주도한 번역본으로 보게 된다.¹¹⁾ 로스본은 한문 성경의 한자어 중에서 ‘使徒: 몸데즈’, ‘逾越節: 넘는절’, ‘上帝 - 하나님’처럼 고유어 중심으로 번역 차용하여 모국어 의식도 보여준다. 다음은 ‘예수성교전서’(1887)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 아바님의 일흠이 성호시며 아바님 나라이 님호시며 아바님 뜻이 땅에 일우

10) 최현배(1962), 유창균(1967), 김영덕(1969, 1971), 김병철(1975) 등은 한글 성경이 언문일치의 생활과 한글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본다. 반면, 조동일(1989: 223)은 “기독교 성경 국역이 기여한 바를 크게 강조한 견해가 있으나 번역은 원본을 대신할 수 없을 뿐더러 서양인 선교사들이 주동이 되어 한 번역이라 두드러진 한계가 있었다. …국문이 널리 쓰인 시기의 성경 번역은 거들 고친 판에서조차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아 어색하고 모호한 문장이 쉽사리 청산되지 못했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런 상반된 평가는 전자가 문화사적 측면을 강조한 때문이고 후자가 성서 직역체의 어색한 비국어적 어법을 지적한 때문이다.

11) 김양선(1967: 100), 김영덕(1971: 12)에서도 로스본의 번역 주체를 한국인으로 보았다. 김병철(1985: 602)참고.

기를 하늘에 힘히심 갖치 하시며 쓰는 바 음식을 날마다 우리로 주시며 사롭의 빚사함 갖치 우리 빚을 사하시며 우리로 시험에 드지 안케 하시며 오직 우리로 악에 구완하여 너소서 하라]

1885년 인천으로 입국한 언더우드 목사는 이미 한글성경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후 로스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성된 ‘공인 번역 위원회’(1887년 조직)의 역본 성경들인 ‘신약전서’(1900, 1904, 1906), ‘新約全書 국한문’(1910), ‘구약전서’(1911)와 최종 신,구약 번역본의 합본인 ‘성경전서’(1911)가 나왔다. 성경 번역과 함께 언더우드 목사가 각 교회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들을 모아 ‘찬양가’(1894)를 내었고 감리교 측에서는 ‘찬미가’(1895)를 내었다.

그런데 이들 개화기 성경 번역본들은 띄어쓰기를 시행하여 현대 정서법의 띄어쓰기 수준에 도달하였던 점도 특기할 사실이다. 띄어쓰기는 서재필이 발행한 ‘독립신문’(1896)에서 시도되었으나 이미 앞서 나온 선교사들의 문법서들에서 부분적인 조짐이 보인다.

한편, 지속적으로 성경 완역이 이루어진 것은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한글 강습을 하여 문맹률을 낮추고 성경 중심 위에서 전도 부흥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 후 새로 구성된 ‘개역위원회’ 역본인 ‘개역성경’(1938), 이를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현재 한국 교회가 공인 사용 중인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 현대어로 문체 수정을 한 ‘신약전서 새번역’(1967), 신구교 공동번역본인 ‘공동번역 성서’(1977), 최근의 ‘개역개정판’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는 새로운 국어 문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어 발달에 기여 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축자직역의 전통 직역체 성경과 달리 의역체 성경은 1920년대 교계에서 벌어진 성경 번역 이론의 논쟁 결과 Gale과 李源謨가 따로 ‘新譯 新舊約全書’(1925)를 낸 것이 있다. 가령,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31회 나오는데 직역체 성경에서는 29회를 번역했으나 Gale 역본에서는 9회만으로 줄여 의역했고 ‘줄아샤디’도 개역성경은 원문대로 10회를 다 번역했으나 게일 역본은 한번만 번역하여 의역에 철저하였다(민영진 1984: 151).

국어학의 응용 분야에서 실용 분야가 번역학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경과 불경의 번역 전통이 한글문화와 관련됨은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성경 번역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은 국어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영어학에서도 유명한 언어학자 겸 성서번역학자인 Eugene A. Nida는 분석 analysis, 이전 transfer, 재구성 restructuring)이라는 번역의 3단계 이론을 제시하여 번역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와 오독 사례를 교정하여 바른 성경 번역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령,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시 23: 5)’를 흔히 ‘머리 빗질하기’로 아는데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손님맞이 풍속인데 성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민영진 1996: 199-200).

(5) 국어 문법 연구와 기독교

중세에 훈민정음 연구에서 우리의 음운학, 문자학 수준은 세계 언어학사에서 훌륭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전통을 쌓아 온 이래 국어학은 개화기에 한국인, 외국인, 일본인들에 의해 문법 분야에서도 발전한다. 외국인의 연구는 대부분 선교사들에 의해 기술되어 정제된 한국어의 문법 기술을 시도하게 된다. 한국인의 문법 연구도 주시경이 배재학당의 서양 선교사들의 영문법의 영향을 받았고 유길준의 문법도 일본 문법의 영향을 받았다. 먼저 외국인 선교사들의 주요 국어 연구를 정리하여 본다.

① John Ross(1877), Corean Primer 조선말 초보

(1878), The Corean Language

(1882), Korean Speech, with Grammar & Vocabulary

② Par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Félix-Clair Ridel

(1880),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1881), Grammaire Coréenne

③ H. G. Underwood

(1880),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1890),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1권 한영사전, 2권 영한사전)

④ J. S. Gale(1863-1937. 한국명 김 일, 캐나다 선교사)

(1895), 턴로력당 =>최초의 번역문학 작품

(1893; 1903; 1916), Korean Grammatical Forms(辭課指南)

(1897; 1911; 1931), Korean-English Dictionary

⑤ Homer Bezaleel Hulbert(1863-1949)

(1895), The Origin of the Korean People

(1905),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Dravidian Dialects of India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인 ‘育英公院’(1886)의 교사로 파견되어 와서 유길준의 ‘西遊見聞’보다 앞서 서구 지리 교과서인 ‘스민필지’를 편찬하여 개화기 계몽에 기여하였다. ‘스민필지’는 헐버트가 1889년-1891년 사이에 편찬한 國內 最初의 世界 地理 教科書이다.

헐버트는 舊韓末에 왔던 많은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의 自主獨立을 위해 가장 헌신했던 외국인이다. 그는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고 高宗의 密使로 미국과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미국의 외교 지원을 얻어 내려 했다. 1907년 4월, 헤이그에 우리측 밀사보다 앞서 도착하여 萬國平和會議(6월) 기간 중에 한국 상황에 대한 호소문(A Plea for Korea)을 번역 배포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1949년 7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초청으로 내한하여 8월 5일, 高齡과 長時間 여행으로 입원, 86세로 서거하였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되었는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碑銘에 새겨져 있다.

다음은 한국인으로서 국어 연구에 기여한 기독교 관련 인물을 소개한다.

① 한헌샘 周時經(1876-1914): ‘독립신문’(1896)이 창간되자 서재필을 도와 ‘독립신문’을 한국 최초로 한글전용, 한글 띄어쓰기, 쉬운 말 쓰기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여러 학교와 강습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데 전념하였다. 배재학당 학생으로 독립신문 교정을 보며 국어 연구에 눈을 뜬 주시경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 대종교가 활약하던 만주로 이주하려고 하였다. 그가 강습하던 ‘국어강습소’는 남대문 상동감리교회에 있던 것이었고 제자들을 모아 ‘국어연구학회’(1908)를 만들었으며 이때의 수강 제자들인 권덕규, 최현배, 이병기, 신명균, 정열모, 장지영 등이 1921년에 스승의 뜻을 기리고자 ‘조선어학회’를 결성하게 된다.

② 尤史 金奎植(1881-1950): 새문안교회 출신으로 언더우드 교수의 출신인 김규식은 1897년 도미, 1903년 버지니아주 Roanoke 대학 우등 졸업, 프린스턴 대학원을 거쳐 1905 귀국, 1913 중국 망명, 영문법에 능통하여 영문법의 영향을 받은 문법서인 ‘대한문법’(1908)을 저술하였다.

③ 한서 南宮 億(1863-1939): 영어학교인 ‘同文學’을 졸업하여 고종 통역관이던 남궁억은 ‘조선어법’(1913)을 저술하였다. 1918년부터 홍천에 정착하여 무궁화 심기 운동을 벌여 홍천의 인물로 알려졌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란 찬송가의 작사자이기도 하다.

6. 현대국어와 종교적 요소

(1) 번역학의 발달과 성경 번역

개화기의 성경 번역을 거치면서 새로 구성된 ‘개역위원회’ 역본인 ‘개역성경’(1938), 이를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한국 교회가 공인 사용해 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 현대어로 문체 수정을 한 ‘신약전서 새번역’(1967), 신구교 공동번역본인 ‘공동번역 성서’(1977), 최근의 ‘개역개정판’(1998)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는 새로운 국어 문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어 발달에 기여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와 같은 축자직역의 전통 직역체 성경과 달리 의역체 성경은 1920년대 교계에서 벌어진 성경 번역이론의 논쟁 결과 Gale과 李源謨가 따로 ‘新譯 新舊約全書’(1925)를 낸 것이 있다. 가령,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31회 나오는데 직역체 성경에서는 29회를 번역했으나 Gale 역본에서는 9회만으로 줄여 의역했고 ‘골아샤디’도 개역성경은 원문대로 10

회를 다 번역했으나 게일 역본은 한번만 번역하여 의역에 철저하였다(민영진 1984: 151).

국어학의 응용 분야에서 실용 분야가 번역학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경과 불경의 번역 전통이 한글문화와 관련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성경 번역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은 국어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영어학에서도 유명한 언어학자 겸 성서번역학자인 Eugene A. Nida는 분석 analysis, 이전 transfer, 재구성 restructuring)이라는 번역의 3단계 이론을 제시하여 번역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 번역상의 오류와 오독 사례를 교정하여 바른 성경 번역을 추구하여야 한다. 가령,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시 23: 5)’를 흔히 ‘머리 빗질하기’로 아는데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 손님맞이 풍속인데 성도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민영진 1996: 199-200).

(2) 문맹 퇴치 운동

한글 계몽과 문맹 퇴치도 일제하 민족 계몽 운동으로 기억할 일이다. 당시 2000만 인구에 1700만명이 문맹이었으니 1930년 당시 보통학교(1710개), 서당(11,469개)으로는 74만여명만이 교육을 받아 학령 아동 250만명에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이르러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張志暎의 기획과 주도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 아래 1929년 7월부터 ‘귀향남녀학생 문자보급운동’을 펼쳐 귀향 학생들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마다 1936년까지 ‘한글원본’이란 한글 학습 교재를 수십만 부 배포하는 계몽 사업을 하였다.

동아일보도 1928년 4월 ‘글장님 없애기 운동’을 선언하였다가 총독부 경무국의 제지를 받았으나 1931년에 다시 러시아의 ‘브나로드’(민중 속으로) 운동을 본받아 1934년까지 브나로드 운동(1932년-34년에는 ‘계몽운동대’로 명칭 변경)을 벌인다. 역시 ‘한글공부’, ‘일용계수법’ 등의 책자를 수십만 부 발행 배포하였다. 이러한 문자 계몽 운동에 교회가 적극 협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예배당 한글 공부 장면이 그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문맹 퇴치 운동은 개화기 교회에서 한글체를 사용하고 한글 강습을 하였던 것이 1930년대 초에 학생에 의한 계몽 운동 성격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선어학회 사건

1930년대 들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대사전 편찬을 기획하여 어문 규정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査定한 조선어표준말모음’(1936)이 갖추어지고 사전 원고 집필에 들어가 1940년 원고를 완성하고 1942년에 조판에 들어갈 상태였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연희전문 교수였던 최현배 선생이었고 연희전문 교수 김윤경(金允經)과 조선일보 문화부장 장지영(張志暎)이 도왔다. 독일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극로(李克魯), 김천고보 교사 정열모(鄭烈模), 이화여전 교수 이희승(李熙昇), 경신고 교사 이윤재(李允宰), 국어학자 한징(韓澄) 등도 힘을 보탰다.

이때 함흥 영생여고 학생의 일기장에서 비화된 사건이 발생하여 영생여고에서 가르치다가 조선어학회에서 사전 집필에 전념하던 정태진 선생을 체포하고 조선어학회원들이 대거 투옥된다. 이윤제, 한 징 선생은 옥사하고 최현배, 이희승, 정태진 등은 옥살이를 한 끝에 해방으로 풀려난다. 이 조선어학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활약한 몇 분은 志士의 삶을 살아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① 외솔 崔鉉培(1892-1970): 국어문법 연구에 일생을 바친 외솔은 새문안교회 교인으로 애국계몽주의적 국어관을 가지고 국어 연구를 하여 ‘우리말본’(1937), ‘한글갈’(1942) 같은 기념비적 업적을 남겼다.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제정에 이희승과 함께 주도적 이론가였으며 한글전용을 주장하였고 민족 계몽에도 관심을 가져 ‘조선 민족 갱생의 도’라는 책을 남겼다. 해방 후에는 군정청 학무국장을 거쳐 문교부 편수국장을 하여 초창기 어문정책, 국어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고 한글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② 例雲 張志暎(1887-1976): 한성외국어학교 한어과 졸업 후 주시경의 상동청년학원에서 교육 받고 학감 역임, 간디의 영향을 받고 1915년 물산장려회를 조직하여 운동하고, 3·운동 때 만세운동 모의하였으며, 조선일보로 옮겨 <문맹퇴치운동>을 주도한다. 총독부 ‘언문철자법’에 참여하고 조선어학회의 ‘맞춤법통일안’, ‘표준말 사정’ 작업에 참여,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 군정청 편수국 부국장, 연세대 교수 역임, ‘이두사전’ 편찬 등 고전 논저를 남겼다.

③ 환산(桓山)·한피 李允宰(1888~1943): 영변(寧邊) 숭덕학교에 근무 중 3·1운동에 관련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고, 1921년 北京大學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24년 귀국해 오산학교를 거쳐 협성학교·경신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글’의 편집·간행을 책임 맡았으며, 34년 진단학회(震檀學會) 창립에 참여했고 36년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 편찬전임집필위원이 되었다. 37년 수양동우회사건(修養同友會事件)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른 뒤 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했는데, ‘한글장로’라는 별명이 있었다. 1947년 유고 ‘표준한글사전’이 간행되었다.

④ 石人(쇠돌) 丁泰鎭(1903-1952): 연희전문 졸업 후 1927 도미 유학, Wooster College 철학과 수석 졸업, Columbia Univ. 교육학과 졸업 1931 귀국, 함흥 영생여고 교사, 1941 조선어학회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전념,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 고초를 겪었고, 해방 후 군정청의 외교부장 자리를 사절하고 사전 편찬에 전념, 金炳濟와 ‘조선고어방언사전’(1948)을 편찬하였다.

(4) 해방 후 어문 정책

해방 후의 군정기와 건국기의 어문정책은 한글전용정책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조선어학회의 최현배 선생이 군정청 학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어문정책에 영향을 끼친 때문이다. 그는 ‘글자의 혁명’, ‘한글의 바른 길’ 등의 책을 내어 한글전용 정책을 이론적으로 주도하였다.

한편 정책적으로도 이를 수용한 사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 이승만의 한글전용 지지 정책도 큰 힘이 되었다. 이승만은 한시를 지을 정도로 한학에도 뛰어났지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글 전용이 옳다고 보아 제헌 국회의 헌법 전문도 한글로 공포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문 정책에 편리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반침 10개로 쓰는 ‘한글 간소화안(1954)’을 무리하여 추진하였는데 일반의 반발이 거세 결국은 철회하였다. 이것이 ‘한글 파동’이다. 전반적으로 한글전용과 한글 편리성을 강조한 이승만의 배경에는 개화기 이래 기독교회가 한글전용을 줄기차게 실천해 온 덕분에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한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승만의 한글간소화안은 정작 조선어학회의 형태주의 표기법과 반대되는 경우라 조선어학회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다.

(5) 국어 어휘와 현대 기독교

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은 새로운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은혜, 물질, 간증’ 등은 기독교에서만 의미 영역을 획득하고 있다. 그런데 어법상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교회에서 상당수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성이 요구된다. 다음은 그러한 사례들이다(정장복 1999, 이송관·김기창 2000 참고).

주여 > 주님; 아버지시여 > 아버지: 2인칭 존칭어에 호격조사를 사용할 수 없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께는 ‘당신’이 무례함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축복’은 ‘복을 구하여 뱉’의 뜻. 주체가 인간이지 신일 수 없다.

감사하신 하나님 > 고마우신 하나님: 하난미이 감사하시다라는 뜻이 되어 문제 있음.

예배 처음 시간이오니: 예배를 이미 시작하였는데 처음이라면 문제 있음.

예배 보다 >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까 > 기도하시겠습니까.

묵도: 일제 신사참배의 묵도 순서 용어이므로 ‘묵상, 조용한 기도’가 적당하다.

성가대: 일본식 한자어. ‘찬양대’가 적합하다.

준비 찬송: 찬송도 예배인데 준비곡 정도로 격하하는 느낌을 준다.

대예배, 공동예배 > 소예배, 단독예배가 있는 것으로 오해 준다.

명복을 빕니다 > 믿음으로 위로 받으십시오.(‘명복’은 불교 용어이다)

영결식 > 장례식: 믿는 이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다.

주일학교 > 교회학교

김영식 성도님: ‘성도’는 복수 표현인데 굳어져 가고 있다.

김영철 형제님, 이미숙 자매님: 단수에게 형제, 자매라고 함은 영어 번역투로 문제 있다.

(6) 언어생활과 종교

속담 표현은 전래 표현인데 이러한 속담들 중에도 종교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 중이 얼음을 건너갈 때는 나무아미타불 하다가도 얼음에 빠지면 하느님 한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의지도 변하게 된다는 뜻】
-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하는 맹세이므로 절대 어기는 일이 없다는 뜻】
- 쫓기는 놈도 ‘하느님 맙소사’하고 쫓는 놈도 ‘하느님 맙소사’한다
【사정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는 다 같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구원을 호소하게 된다는 뜻】
-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효성이 지극한 사람의 말은 하느님도 들어 준다는 뜻】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학에 나타나는 종교적 요소를 찾아보았다. 대체로 언어기원, 언어계통, 언어윤리 등에서 종교와 관련되는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불경, 성경 번역의 전통에서 우리나라 번역학의 역사적 연원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국어 문자 발달사와 관련하여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차자법은 불경 번역 과정에서 한자의 음훈을 이용한 원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불교의 전래와 관련되고, 한글 창제는 성리학의 음양오행설을 적용한 성운학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며, 한글 보급에서는 불경 언해와 성경 번역 사업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국어문화의 발전에 유교, 불교,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문화전쟁, 언어 전쟁의 시대라는 21세기에 이들 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 하겠다. 아마도 정확하면서도 알기 쉬운 이상적 경전 번역 및 집대성을 통한 번역학 발전, 종교 윤리와 언어 윤리의 공동 실천, 종교와 언어 이론에서의 비과학적 언어 표현들에 대한 비판적 개선과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그런 과제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항(1967), 19세기 초에 있어서 서양인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고영근(1976), 19세기 중엽의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에 대하여, 김형규 박사 정년퇴임논문집, 서울대 사범대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국립국어연구원(1998), 석인 정태진 선생의 학문과 인간, 새국어생활 1998년 가을호특집
 김동언(1998), 턴로력당과 개화기 국어, 한국문화사
 김민수(1977), 주시경연구. 탑출판사. 이기문(1976), 주시경전집(상하). 아세아문화사.
 김민수(1979), 신국어학사, 일조각
 김방한(1994), 언어학의 이해, 민음사
 김양선(1955),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성서한국 1-1, 대한성서공회
 김영덕(1952), 언해와 번역, 국어국문학 2, 국어국문학회
 김영덕(1966), 한국의 근대적 문학 배경과 기독교, 이화여대 80주년기념논문집, 이대 부설 한국문화연구원
 김영덕(1969), 언해 문체와 성서문체와의 관계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 이화여대
 김영배(1985), 'Corean Primer'의 어휘(상), 어문논총 7·8, 전남대
 김영배(1985), 'Corean Primer'의 어휘(하), 월촌 구수영 선생 화갑기념논총
 김윤경(1938) '조선 문자 급 어학사', 조선기념도서출판관

- 김윤경(1960), 성서가 국어에 미친 영향, 한국성서번역 50주년기념논문집, 대한성서공회
- 김진우(1985), 언어, 탑출판사
- 나채운(1990), 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1995), 새문안교회 백년사
- 민영진(1984),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 민영진(1996),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두란노
- 박리정(1990), ‘한불즈던’의 국어학적 연구, 명지어문학 19, 명지대
- 박병채(1973), 고대국어의 연구, 고려대 출판부
- 백낙준(1973), 한국개신교사, 연대출판부
- 서정수(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서정수(1987), 초기 한글성경과 독립신문, 그리스도교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송민(1972), 19세기 천주교 자료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72·73, 국어국문학회
- 송민(1987), 프랑스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과정, 교회사연구 5, 한국교회사연구소
- 염소연(1999), 개화기 국역 성서 어휘의 의미·통사론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여찬영(1989), ‘한영즈던’에 대한 몇 가지 분석,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 오미나(2000), ‘스민필지’의 국어학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유창균(1967), 국역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끼친 영향, 동서문화 창간호, 계명대
- 이광린(1969, 1993),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 한국 개화사 연구, 일조각
- 이광수(1917), 耶蘇敎의 朝鮮에 攄 恩惠, 청춘 9
- 이덕주(1985),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대한 연구,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이병근(1985), 주시경. 국어연구의 발자취(1).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성구(1985), 훈민정음 연구, 동문사
- 이송관(2000),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 알고 바로 쓰자, 예찬사
- 이송녕(1965), 천주교 신부의 한국어 연구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8-2, 고려대
- 이원순(1977), 성서 국역사 논고, 민족문화 3집, 민족문화추진회
- 이용호(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청사
- 이용호(1980),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 사업, 논문집 7집, 성결교 신학교
- 이용호(1983), ‘한불즈던’에 대하여, 한글 179, 한글학회
- 이용호(1983), 최초의 한글 성경 ‘예슈성교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지야(2002), ‘한불즈던’의 사전학적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정길남(1984), 이수정 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6,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정길남(1987), 개화기 국역 성서의 표기법과 문법 형태, 개문사
- 정길남(1992), 19세기 성서의 우리말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정장복(1999),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조동일(1986, 1989),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 조화선(1977), ‘성경직회’의 연구, 최석우 신부 회갑 기념 논총, 교회사연구소
- 지춘수(1971), 초기 성경에 나타난 정서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 채완(1996), 불교 용어의 일상어화에 대한 고찰, 이기문 교수 정년기념퇴임논총, 신구문화사
- 최태영(1983), 초기 번역 성경 연구 1, 숭실대학교 논문집, 숭실대
- 최태영(1985), 초기 번역 성경 연구 2,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최태영(1986), 초기 번역 성경 연구 3,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최태영(1991), 초기 번역 성경 연구 4,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최현배(1948), 한글의 바른길, 정음사
- 최현배(1962),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집, 연세대 신과대학 신학회
- 최현배(1962), 글자의 혁명, 조선교학도서
- 표성수(1971), 한글성서문체 형성 및 변천 과정에 관한 소고, 고려대 석사논문